

백화점 여직원의 유니폼 속성, 동작적합성, 치수적합성에 대한 평가

김순분 · 이영숙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The Evaluation of Women Empolyees of Department Store about the Characteristics, the Movement Adaptability and the Fitness of Their Uniform

Soon-Boon Kim and Yeong-Suk Lee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Kyungsan, Korea

Abstract :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s to the uniform industries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the functional and esthetical go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243 department woman employees in Daegu City. The data were analysed through factor analysis, one-way ANOVA, Scheffe-test, χ^2 -test, and t-test.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ages were from 20 to 50 years old, and their working divisions were clothing (46.5%), food (18.1%), miscellaneous (14.4%), daily articles (11.1%). The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of their uniform was somewhat unsatisfactory (2.65) and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age groups. The unsatisfaction of blouse materials (2.11) were the highest among the evaluation of the materials, and the inconveniency of sitting posture with folding knees were the highest (3.98) and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working division group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fitness were showed in the sleeve length of blouse, the length of vest, and the length of trousers.

Key words : uniform, characteristics of uniform, movement adaptability, fitness

1. 서 론

인간에 있어서 의복은 개인의 사회적 직위, 역할, 성격, 태도, 직업, 가치관 등을 전달해 주는 무언의 시각언어이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의복은 사회적 승인을 얻기도 하고, 다른 동료와 인간관계를 잘 조절하며 직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편의적인 적응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모든 집단 구성원의 공통적 정체감은 의복에 의해 강화된다(김장미·박혜원, 2006).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에 부합되는 의복 이상형을 지각하게 된다.

특히 직장이라는 조직에 속한 직업인들에게 사회생활을 위하여 직장 내 의복규범 준수 문제는 더욱 중요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복은 그 집단에 적절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승인을 얻으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작업을 위한 의복의 한 형태인 유니폼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체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작업능률을 올릴 수 있는 의복으로서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착용자의 미적 감각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 서비스의 강화 등의 극대화 전략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경영전략으로써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를 도입하여 유니폼은 기업 수준의 질적인 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시 되어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직업인의 유니폼은 그 기업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하고 착용자의 업무내용, 기호,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디자인이 되어야 하므로 특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서지영, 2000).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니폼은 새로운 변화를 원하면서도 오늘날 패션 흐름에 비해 유니폼 형태가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유통산업의 경우 특히, 고급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점포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서비스로 차별화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지고 있다(김혜원·박경애, 2003).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에서 판매 사원의 유니폼은 그 백화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백화점 판매여사원의 단정한 이미지는 서비스와 함께 백화점의 이미지로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니폼에 대한 보다 디자인적이며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둔 디자인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백화점 여직원을 대상으로 유니폼의 속성 및 동작 기능성,

Corresponding author; Soon-Boon Kim
Tel. +82-53-850-6823, Fax. +82-53-850-6829
E-mail: sbkim@daegu.ac.kr

치수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착용자를 중심으로 한 유니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유니폼 생산에 유효한 자료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유니폼(uniform)이란 제복을 말하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정양식의 복장을 말한다. 그 어원은 라틴어의 유니스(unis, 하나의)와 포르마(forma, 형)에서 생긴 합성어로 일정한 형태나 외양을 가리킨다. 제복은 자유복과 달리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형태나 필요한 장식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함은정, 2005). 유니폼은 같은 목적 하에 여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소속감을 표시하며 내부적으로는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 착용하는 의복이다. 기업이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신분의 보장은 물론 소속된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주어진다. 외적으로는 기업을 상징하고 기업의 이미지 전달의 역할을 하며, 내적으로는 업무의 자세를 잡아 주며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소속된 집단의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며 자기 맡은 일에 대한 긍지와 질서인식을 갖게 하고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도 한다(김연희, 2003). 종래 기업들의 유니폼은 딱딱한 스타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 항공업계 및 중고교 교복제작에도 유명디자이너가 유니폼제작에 참여하였고 K통신업체의 영업점과 고객센터 직원의 유니폼은 유명디자이너가 제작한 것으로 캐주얼한 디자인과 소재로 활동성을 높혀 10대와 20대가 주고객인 만큼 젊고 역동적인 기업 이미지를 강조했다(조선일보, 2006).

이러한 유니폼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백화점 여직원의 유니폼은 고객에 대한 백화점의 이미지 전달과 직원에 있어서는 업무의 능률을 높여주는 역할과 소속된 집단의 인식을 갖게 하며 책임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 백화점 여직원 유니폼은 활동성과 기능적인 면에서 수트형이 선호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스커트 수트형을 입다가 오늘날 팬츠 수트도 보편화 되었다(한현희·박명희, 2005). 백화점의 특성과 이미지를 반영하는 판매사원 유니폼은 고객과 차별성 및 심미성을 나타내고, 이를 통한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판매사원의 신뢰성도 획득할 수 있다.

2.1. 유니폼의 속성

유니폼은 소속된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목적과 소속 부서나 타기업과 구별을 위한 식별상 목적, 근무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동료들과 일체감을 준다. 또한 착용한 유니폼으로 인해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는 의례상 목적과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능률과 생산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능상 목적이 있으며, 현대패션 감각을 도입해 미적효과를 높이게 함으로써 근무자와 고객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심미적 목적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른 속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착용자의 입장에서는 작업능률 향상과 좋은 기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하므로, 장시간 기능성에 따른 활동 시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그 회사의 상징성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유니폼의 구성 요건으로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의 3요소를 들 수 있다.

상징성 : 유니폼은 사회적 신분, 직업, 착용 의도에 대한 단서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의복을 통하여 타인의 성별, 연령, 인종, 신체적인 특징 등을 관찰하게 된다. 특히, 직업인의 의복은 직업적 신분 상징의 역할이 매우 커서 육체 노동자는 작업복 및 유니폼에 의해 인지되고, 정신 노동자는 정장 및 운동복으로 인지되며 이외에 직물, 색상, 의복무늬, 의복선택사항 등도 직업특성을 상징하는 단서가 된다(함은정, 2005). 유니폼은 개인적인 미보다 통일된 의식 집단체를 형성하게 되므로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김연희, 2003). 직종에 따라서 통일된 형태, 색조, 옷차림 등 그 집단 사무나 행동을 나타내는 각 유니폼의 상징적인 적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다(남윤자 외, 1997). 여기에 기업 독자적 이념과 개성, 경영자 자세, 종업원 의식이 포함된다. 유니폼은 기업 얼굴이며, 업체 종류, 직종형태 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서비스업일 경우에 그 기업 고객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유니폼 디자인은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관리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옹기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능성 : 기능성이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성으로 모든 물건은 각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 구조, 형태, 소재 등에 따라 디자인이 결정되고 제작되어야 한다(이은영, 1983). 유니폼은 착용하고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이어야 하며 기능상의 문제를 착용자의 직업내용이나 활동량, 그리고 계절적인 문제,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의복기능성 향상, 그 중에서도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한 인간 인자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신체와 비례, 치수, 체형, 그리고 감각, 지각, 발한, 체온 등에 관한 생리적 인자 등에 대하여 이들 인자가 피복 착용감이나 안정성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또 어떠한 형으로 자료화하게 되면 의복제작 상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인가를 인간공학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유니폼은 환경과 신체와의 관계를 적절히 규명해 냄으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착용자 피로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심미성 :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옷을 통해서도 미적 감각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인류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의복은 다양하게 발전 변화하여 각 개인 인격 및 신분 표현 매체가 되기도 하나 장식적 목적이 강하게 남아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신체에 적합한 옷을 착용하였을 경우 착용자는 만족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만족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신의 기쁨을 타인에 대한 친절로 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유니폼은 무엇보다도 착용자 기호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부차적인 요소는 타인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서비스업 유니폼 선정에 있어서 많은 기업이 미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음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니폼 디자인은 근무환경 및 착용자 요구 조건을 고려하여 착용자와 관찰자 모두 미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 유니폼에 관련된 연구는 유니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송경인, 1992; 남윤자 외, 1997; 서지영, 2000; 정나니, 2000; 김시중·양리나, 2002; 김연희, 2003)와 특수작업장 근무복 등에 관한 연구(김혜령·서미아, 2002; 오유진·최혜선, 2004; 장선옥, 2005; 허진경, 2006) 등이 있으나, 백화점 여직원을 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착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양리나(2001)는 특급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유니폼 만족도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게 나타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착용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디자인 및 활동성 측면에서의 개선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나 호텔 종사원의 유니폼은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활동적인 소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황정순·서미아(1998)의 연구에서는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3점' 수준에 미치지 않아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남윤자 외(1997)의 연구에서는 유니폼의 구성요소 중 기능성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화점 근무자의 유니폼을 착용자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미흡함이 강조되고 있는 동작기능성 및 치수적합성을 보다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대구지역 내 백화점 여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7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기입누락, 기입 불명확, 이중기입 등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243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2.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2006년 3월 백화점 매장 내 여직원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거쳐 유니폼 착용 실태에 관한 본 조사는 2006년 4월에 실시하였다.

3.3. 조사내용

1차적으로 문헌과 실물자료, 관련업체 제공자료 등을 통하여 유니폼에 관련된 시장 환경 및 이론적인 자료를 파악하였다. 관련분야의 선행 연구(남윤자, 1997)를 토대로 하고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문항과 유니

폼 속성평가 14문항, 소재평가 4문항, 동작적합성 관련 15문항, 치수적합성 관련 10문항, 옷의 수선부위와 수선실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문항은 보기 응답 중 해당되는 사항에 선택표기하게 하고, 속성평가 및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 평가는 5점 평정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3.4. 자료분석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유니폼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은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Ch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베리맥스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eigen value 1 이상인 것을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일 집단간의 평균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와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이용하였다. 각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leq .05$ 로 하였다.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으며 연령구간은 20세에서 50세까지로 20대는 39.9%, 30대는 28.8%, 40대 이후가 31.3%로 연령구간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근무부서는 의복부 46.5%, 식품부 18.1%, 잡화부 14.4% 생활용품부 11.1% 순이며, 의복부에 근무하는 대상이 가장 많았다. 근무 경력은 3년 미만 32.9%, 5년미만 24.7%, 10년 미만 26.8%, 10년 이상이 15.6%로 분포되어 있었다.

4.2. 유니폼 속성에 대한 평가

선행연구(남윤자 외, 1997)를 토대로 유니폼 관련 14문항에

Table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항목	명(%)
연령	24세 이하	43(17.7)
	25세~29세 이하	54(22.2)
	30세~34세 이하	28(11.5)
	35세~39세 이하	42(17.3)
	40세~44세 이하	46(18.9)
	45세 이상	30(12.4)
근무경력	3년 미만	80(32.9)
	5년 미만	60(24.7)
	10년 미만	65(26.8)
	10년 이상	38(15.6)
근무부서	여성복	39(16.1)
	남성복	44(18.1)
	아동복	30(12.3)
	스포츠	8(3.3)
	식품부	44(18.1)
	잡화부	35(14.4)
	생활용품(가전, 주방)	28(11.1)
	기타(영업, 사무)	16(6.6)
	전체	243 (100.0)

Table 2. 유니폼 속성의 요인분석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우리 백화점 유니폼은 흡수성이나 신축성 등이 뛰어나다	0.676	-0.068	0.267
우리 백화점 유니폼은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 옷감이라 만족한다	0.654	0.180	0.173
유니폼의 세탁 및 손질이 편한 편이다	0.643	0.285	-0.146
유니폼의 치수가 신체치수와 잘 맞아 활동에 불편함이 없다	0.632	0.160	0.104
유니폼의 봉제가 견고하게 잘 되어있어 수선의 번거로움이 없다	0.590	0.180	0.268
유니폼 착용으로 근무나 작업 시 능률이 향상 된다	0.484	-0.004	0.438
우리 백화점의 유니폼에 표현된 무늬는 디자인 및 색상과 잘 어울린다	0.109	0.830	0.167
우리 백화점 유니폼은 상하 색상이 잘 어울린다	0.125	0.869	-0.046
타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백화점 유니폼의 디자인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0.124	0.659	0.277
우리 백화점 유니폼은 백화점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	0.221	0.558	0.216
유니폼에 우리 백화점의 상징물이나 로고가 잘 나타나 있다	0.065	0.083	0.764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은 소속감을 잘 나타내어 준다	0.049	0.221	0.730
유니폼은 백화점의 상징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	0.148	0.499	0.605
유니폼은 내가 해야 하는 직무를 잘 상징하고 있다	0.421	0.140	0.553
고유치	4.51	1.55	1.35
총변량(%)	32.22	11.08	9.66
누적변량(%)	32.22	43.30	52.95
신뢰도계수(cronbach α)	.82	.82	.81

대해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값은 .8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주성분이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은 전체의 52.95%에 해당된다. 요인 1은 고유치 4.51로 총 변량의 32.22%를 설명해 주며 부하량이 집중되어 있는 항목은 치수적합성, 세탁편리성, 오염방지 등 기능성을 요구하는 항목으로 요인 1은 기능성이라 할 수 있다. 요인 2는 고유치 1.55, 변량의 기여율은 11.08%이며, 요인 2에 포함된 항목은 이미지 적합성,

컬러코디의 적합성, 디자인의 차별화 등 심미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어 요인 2는 심미성이라 하였다. 요인 3에 포함된 항목은 직무에 대한 상징성, 유니폼의 소속감, 로고나 상징물의 적합성 등으로 유니폼의 상징적인 의미 항목으로 보여 요인 3을 상징성으로 하였다.

요인별 만족도 : 세 가지 요인에 대한 평가는 Table 3과 같다.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3으로 나타났다. 봉제 품질 2.34로 불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의 신축성과 관련된 측면은 평균 1.79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유니폼 속성의 요인별 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유니폼의 치수가 신체치수와 잘 맞아 활동에 불편함이 없다.	2.61	1.11
유니폼의 세탁 및 손질이 편한 편이다.	3.27	1.10
유니폼 착용으로 근무나 작업 시 능률이 향상된다.	2.42	1.04
우리 백화점 유니폼은 더러움이 잘 타지 않는 옷감이라 만족한다.	2.74	1.15
우리 백화점 유니폼은 흡수성이나 신축성 등이 뛰어나다.	1.79	0.93
유니폼의 봉제가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 수선의 번거로움이 없다.	2.34	1.16
기능성	2.53	0.70
우리 백화점 유니폼은 백화점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	2.85	0.81
우리 백화점의 유니폼은 상하 색상이 잘 어울린다.	3.22	1.01
타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백화점 유니폼의 디자인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2.18	1.03
우리 백화점의 유니폼에 표현된 무늬는 디자인 및 색상과 잘 어울린다.	2.79	0.97
심미성	2.76	0.72
유니폼은 내가 해야 하는 직무를 잘 상징하고 있다	2.90	0.95
유니폼에 우리 백화점의 상징물이나 로고가 잘 나타나 있다.	2.09	1.02
유니폼은 백화점의 상징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	2.79	0.92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은 소속감을 잘 나타내어 준다.	2.83	0.99
상징성	2.65	0.73
전체	2.65	0.57

가장 불만족하다는 것은 그 만큼의 요구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활동 가능성을 위하여 신축성 소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심미성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2.76으로 약간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의 차별화 부분에서 2.1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컬러 코디네이션관련 항목에서는 3.22로 그저 그런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색상에서는 다소 불만이 적은 것으로 보였다.

상징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68로 나타났다. 소속감, 대표성, 직무에 대한 상징성에서 모두 '그저 그렇다'의 3점보다 낮아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니폼에 백화점의 로고나 상징물 등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를 3점으로 볼 때 전체 평균 2.65로 불만족한 편이었으며, 기능성에 의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는 기능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활동기능성이 좋은 유니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각 집단에 따른 요인별 만족도 : 연령에 따른 유니폼의 구성요인의 만족도 비교는 Table 4와 같으며 20대는 모든 구성요인에서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심미성은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심미성과 상징성은 집단별 유의차가 있었다. 사후 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 심미성은 30대와 40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각각 20대와는 집단 간의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대가 심미성에 대한 불만족이 더 커서 유니폼의 심미성에 대한 요구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상징성은 20대와 40대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연령에 따른 속성별 만족도 비교

요인	20대	30대	40대	전체	F-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기능성	2.41(.59)	2.61(.69)	2.61(.81)	2.53(.70)	2.59
심미성	2.58b(.64)	2.87a(.74)	2.89a(.76)	2.76(.72)	5.38**
상징성	2.49b(.62)	2.69ab(.73)	2.80a(.84)	2.65(.73)	4.06*

*p<.05 **p<.01 Scheffe a>b

Table 5. 연령에 따른 품목별 소재평가 비교

품목	20대	30대	40대	전체	F-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블라우스	2.10(.99)	2.16(1.11)	2.08(1.12)	2.11(1.07)	.099
베스트	2.75(.89)	2.90(1.02)	2.79(.98)	2.81(.96)	.504
하 의	2.34b(1.04)	2.79a(1.05)	2.62ab(1.13)	2.56(1.08)	3.620*

*p<.05 Scheffe a>b

Table 6. 근무부서에 따른 품목별 소재평가 비교

품목	의복부	식품부	잡화부	생활용품	기타	전체	F-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블라우스	1.99ab(1.05)	2.52ab(1.02)	2.11ab(1.05)	1.75b(1.09)	2.63a(.89)	2.11(1.06)	3.967**
베스트	2.76(.96)	2.86(1.00)	2.83(1.04)	2.89(.86)	2.81(.83)	2.81(.96)	.177
스커트/바지	2.59ab(1.11)	2.14b(1.09)	2.91a(1.07)	2.63ab(.88)	2.56ab(.96)	2.56(1.08)	2.786*

*p<.05 **p<.01 Scheffe a>b

4.3. 유니폼의 착용 평가

소재평가 : 품목별 소재 평가는 모든 품목에서 약간 불만족한 것(2.46)으로 나타났으며, 블라우스(2.11), 하의(2.56), 베스트(2.81)순으로 나타나 블라우스 품목의 소재 개선 요구를 짐작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품목별 소재평가 비교는 Table 5와 같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블라우스 소재의 불만족이 가장 컸으며, 베스트에 대한 평가가 다소 높았다. 베스트와 하의는 소재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활동성이 요구되는 품목에 따라 착용감이 다르게 느껴져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하의 품목에서 20대와 30대 간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20대가 하의 소재의 불만족이 더 컸다.

근무부서에 따른 소재 평가는 Table 6과 같다. 의복부, 잡화부, 생활용품부에서 블라우스 품목이 가장 낮았고 식품부, 기타 부서는 하의에 대한 소재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블라우스 소재 평가는 식품부와 생활용품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용품부가 가장 불만족하였다. 하의는 식품부와 잡화부 사이에 유의차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 부서별 근무 시 주로 취하는 동작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동작적합성 평가 : 근무 시 서 있는 동작 외에 가장 많이 취하는 주된 작업동작은 팔을 앞으로 굽히는 자세,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팔을 위로 올리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순으로 나타났다. 상체에 해당되는 팔과 관련된 자세는 주로 블라우스에 영향을 미쳐 블라우스의 만족도를 낮게 하고,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하의에 영향을 미쳐 바지와 스커트의 만족도를

Table 7. 동작에 따른 불편정도

항목		명	%	평균	표준편차
작업 시 취하는 주된동작	팔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	92	38.5		
	팔을 위로 올려하는 동작	61	25.5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63	26.4		
	쪼그리고 앉는 동작	23	9.6		
	전체	239	100		
동작 시 불편정도	서 있을 때			2.52	.80
	앉아 있을 때			3.75	1.00
	팔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			3.01	.86
	팔을 위로 올려 하는 동작			3.58	.99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3.39	.86
	쪼그리고 앉는 동작			3.98	.97
	평균			3.37	0.91

1:매우 편하다→3:보통이다→5:매우 불편하다

Table 8. 근무부서에 따른 동작 시 불편정도 비교

항목	의복부	식품부	잡화부	생활용품	기타	전체	F-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서 있을 때	2.58(.80)	2.45(.71)	2.36(.99)	2.48(.71)	2.63(.62)	2.52(.80)	.638
앉아 있을 때	3.76(1.00)	3.63(1.07)	4.00(.97)	3.74(1.02)	3.44(.81)	3.75(1.00)	1.098
팔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	2.97(.90)	3.18(.79)	2.97(.90)	3.19(.79)	2.63(.62)	3.01(.86)	1.621
팔을 위로 올려하는 동작	3.55(1.07)	3.45(1.00)	3.62(.99)	3.93(.72)	3.44(.73)	3.58(.99)	1.107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3.39(.90)	3.30(.88)	3.44(.93)	3.48(.70)	3.44(.63)	3.39(.86)	.247
쪼그리고 앉는 동작	4.07ab(.94)	3.50b(1.17)	4.23a(.91)	4.22a(.70)	3.75ab(.77)	3.98(.97)	4.351**

**p<.01 Scheffe a>b

낮게 하여, 품목별 동작적합성과 연관되어 치수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동작에 따른 불편정도는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 3.37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하의와 관계된 쪼그리고 앉는 동작과 앉아 있을 때 각각 3.98, 3.75로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꼈으며, 상의와 관계된 팔의 동작은 팔을 위로 올릴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른 동작 시 불편정도 비교는 Table 8과 같으며 잡화부서가 ‘쪼그리고 앉는 동작’에서 4.23으로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팔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과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에서는 생활용품부가 가장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생활용품부 부서의 업무 특성상 상체에 따른 팔 동작이 많은 것을 고려해 신축성 소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쪼그리고 앉는 동작’ 항목에서 식품부보다 잡화부, 생활용품부가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p<.01수준에서 부서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작에 따른 부위별 불편정도는 Table 9와 같다. 상의부위는 베스트 여밈 부분, 크기(폼) 부분, 상의의 전체 길이 부위에서 그저 그런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하의의 부위별 불편정도는 약간 불편한 정도로 느끼고 있으며 스커트 부분이 보다 높은 3.31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동작 시 불편정도 비교는 Table 10과 같으며 동작에 따른 상의의 전체길이에서 20대와 40대간 유의한 차이

Table 9. 동작에 따른 상.하의 부위별 불편정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블라우스의 진동 부분	3.35	1.02
블라우스의 목 부분	3.21	.93
크기(폼) 부분	3.16	.81
블라우스 소매 부분	3.35	.95
블라우스 여밈 부분	3.26	1.00
베스트 여밈 부분	3.12	.89
상의의 전체 길이	2.96	.81
하의의 허리 부분	3.24	.92
스커트 부분	3.31	.88
바지 부분	3.25	.86
하의의 여밈 부분	3.23	.89
하의의 전체 길이	3.09	.82

1:매우 편하다→3:보통이다→5:매우 불편하다

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기존 유니폼 디자인의 길이를 참조할 때 젊은층은 보다 짧은 길이를 더 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사료된다. 하의 불편정도는 20대는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더 불편하게 느끼고 있고, 스커트 부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의의 허리부분과 바지 부분 항목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으며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집단 중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Table 10. 연령에 따른 동작 시 불편정도 비교

항목	20대	30대	40대	전체	F-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상의	블라우스의 진동부분	3.40(1.02)	3.46(1.04)	3.20(.99)	3.35(1.02)	1.237
	블라우스의 목 부분	3.29(.91)	3.13(.94)	3.22(.95)	3.22(.93)	.606
	크기(폼) 부분	3.28(.71)	3.16(.87)	3.00(.88)	3.16(.81)	2.522
	블라우스 소매 부분	3.41(.85)	3.43(.99)	3.19(1.04)	3.36(.95)	1.401
	블라우스 여밈 부분	3.27(.92)	3.33(1.02)	3.19(1.07)	3.26(1.00)	.365
	베스트 여밈 부분	3.25(.82)	3.04(.83)	3.03(1.01)	3.12(.89)	1.657
	상의의 전체 길이	3.13a(.77)	2.91ab(.80)	2.78b(.84)	2.96(.81)	4.259*
하의	하의의 허리 부분	3.50a(.86)	3.10b(.89)	3.04b(.94)	3.24(.92)	6.824**
	스커트 부분	3.36(.82)	3.14(.84)	3.39(1.00)	3.31(.88)	1.094
	바지 부분	3.41a(.79)	3.28ab(.76)	3.02b(.97)	3.25(.86)	3.676*
	하의의 여밈 부분	3.39(.79)	3.09(.89)	3.13(.98)	3.23(.89)	2.919
	하의의 전체 길이	3.22(.74)	3.06(.78)	2.95(.94)	3.09(.82)	2.374

*p<.05 **p<.01 Scheffe a>b

Table 11. 근무부서에 따른 동작 시 상의 불편정도 비교

항목	의복부	식품부	잡화부	생활용품	기 타	전체	F-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블라우스 진동부분	3.37ab(1.10)	3.36ab(.75)	3.26ab(1.02)	3.72a(1.06)	2.81b(.75)	3.35(1.02)	2.042*
블라우스의 목부분	3.15(.99)	3.27(.73)	3.46(.92)	3.37(1.04)	2.88(.62)	3.22(.93)	1.518
크기(폼) 부분	3.14(.82)	3.16(.90)	3.26(.85)	3.22(.80)	3.00(.52)	3.16(.81)	.341
블라우스 소매부분	3.43(.98)	3.24(.91)	3.31(1.03)	3.38(.88)	3.19(.83)	3.36(.95)	.476
블라우스 여밈부분	3.22(1.03)	3.12(.85)	3.48(1.15)	3.62(.98)	3.00(.63)	3.26(1.00)	1.823
베스트 여밈 부분	3.02(.92)	3.16(.90)	3.13(.87)	3.46(.86)	3.25(.58)	3.12(.89)	1.479
상의의 전체 길이	3.03(.75)	2.80(.88)	3.00(.94)	2.88(.91)	2.94(.68)	2.96(.81)	.770

*p<.05 Scheffe a>b

근무부서에 따른 동작 시 상의의 불편정도 비교는 Table 11과 같다. 블라우스의 진동부분에서 생활용품부와 기타부서 사이에 유의차를 보였으며, 생활용품부가 불편정도가 더 높았다. 그러므로 특히 팔 동작이 많이 요구되는 블라우스 진동부분의 여유량을 고려한 기능성 소재와 디자인이 요구된다.

4.4. 유니폼 치수적합성

현재 사용되는 유니폼의 치수는 Table 12와 같이 S치수에서 XXL치수로 구분되며 근무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의 치

Table 12. 유니폼과 기성복 착용 치수

구분	명(%)		
유니폼 착용치수	S	60(25.1)	
	M	102(42.7)	
	L	58(24.3)	
	XL	15(6.3)	
	XXL	4(1.7)	
기성복 착용치수	S	M 51(85.0)	60(100)
	M	L 72(70.6)	102(100)
	L	XL 14(24.4)	58(100)
	L	XL 13(86.7)	15(100)
	XL	XXL 2(50.0)	4(100)

수는 전체 응답자(239명)중 M치수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S치수가 25.1%, L치수가 24.3%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현재 착용하는 의복 치수를 유니폼과 기성복의 착용치수와 비교한 결과 모든 치수에서 유니폼보다 기성복을 한 치수 크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S치수는 60명중 51명이, M치수는 102명중 72명이 유니폼보다 기성복을 크게 선택하는 것은 현재 유니폼의 치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제작되어 있어 오히려 착용자들의 기성복 착용치수 보다 유니폼을 한 단계 작은 치수로 선택하여 착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성복의 경우 브랜드별 연령대가 구분되어 있으나 유니폼은 하나의 치수체계로 전체 연령대가 치수구분으로만 착용하므로 기성복과 유니폼의 치수체계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유니폼의 치수적합성을 위한 선택방법은 Table 13과 같이 표

Table 13. 치수적합성 선택방법

항목	명	%
표기치수대로 입어보고 선택 후 착용	105	43.8
표기치수대로 입어보고 선택 후 수선하여 착용	129	53.8
생산업체에 개인치수대로 주문하여 착용	6	2.5
합계	240	100

Table 14. 연령에 따른 치수적합성 비교

항목	20대	30대	40대	전체	F-value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블라우스	블라우스 품	2.86(.77)	3.04(.94)	3.04(.94)	2.96(.88)	1.260
	블라우스 길이	2.76(.78)	3.06(.85)	3.00(.95)	2.91(.86)	2.718
	블라우스 소매길이	2.79b(.76)	3.14a(.75)	3.08ab(.89)	2.98(.82)	4.685**
	블라우스 소매통	2.94(.70)	3.19(.69)	3.21(.85)	3.10(.75)	3.490*
	블라우스 목 둘레	3.02(.69)	3.15(.83)	3.16(.90)	3.10(.80)	.851
베스트	베스트의 품	2.83(.89)	2.92(.90)	2.94(.94)	2.89(.90)	.366
	베스트 길이	2.76b(.84)	3.01ab(.77)	3.20a(.84)	2.97(.84)	6.345**
하의	하의의 허리둘레	2.92(.81)	2.92(.83)	3.14(.86)	2.98(.86)	1.605
	하의의 엉덩이 둘레	3.04(.69)	2.95(.88)	3.08(.70)	3.02(.75)	.506
	하의의 길이	2.90b(.78)	3.08ab(.72)	3.23a(.76)	3.05(.77)	3.923*

*p<.05 **p<.01 Scheffe a>b

기치수대로 입어보고 선택한 후 신체에 맞게 수선하여 착용한다는 결과가 53.8%로 가장 많아 치수적합성을 위한 수선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현재 착용중인 유니폼의 치수적합성이 낮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치수적합성 선택유형에 따른 연령집단 간 비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선 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 특성을 고려한 패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연령과 근무부서에 따른 비교에서 유의차는 없었다.

유니폼의 치수적합성은 3점을 '보통이다'로 볼 때 전체 평균 2.98로 보통이었으며 블라우스와 베스트, 하의 모두 만족도가 '그저 그렇다'인 3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 중 적합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블라우스 길이(2.91)와 베스트의 품(2.90)이었다.

연령에 따른 품목 부위별 치수적합성 비교는 Table 14와 같으며 20대는 모든 항목이 약간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30대는 블라우스 소매통과 블라우스 목둘레 항목에서, 40대는 블라우스 소매통과 하의의 길이 항목에서 약간의 적합성을 보였다. 블라우스의 소매길이, 베스트 길이, 하의의 길이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있었으며, 블라우스 소매길이 항목에서 30대가 보다 높은 점수를, 베스트 길이와 하의의 길이 항목에서는 40대가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근무부서에 따른 비교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4.5. 수선실태

현재 착용 유니폼의 수선실태는 Table 15와 같다. 품목별 길이 항목에서 수선 빈도가 가장 많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치수적합성이 높은 패턴 개발 시 참고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블라우스의 수선 비율은 26%로 수선을 한다고 응답한 착용자의 대부분이 줄이는 수선(20.2%)을 하고 있었다. 줄이는 수선을 많이 하는 항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의 품이 크거나 소매길이, 블라우스 전체 길이가 길어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블라우스의 경우 신축성이 없는 소재이므로 활동성을 갖기 위하여 큰 치수를 선택하여 부분별로 수정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Table 15. 품목 부위별 수선실태

(unit: 명(%))

품목	수선		수선안함	전체	
	줄임	늘임			
블라우스	가슴둘레	57(23.5)	18 (7.4)	168(69.1)	243(100)
	허리둘레	49(20.2)	15 (6.2)	179(73.7)	243(100)
	목둘레	31(12.8)	17 (7.0)	195(80.2)	243(100)
	어깨넓이	43(17.7)	9 (3.7)	191(78.6)	243(100)
	소매통	38(15.6)	12 (4.9)	193(79.4)	243(100)
	소매길이	55(22.6)	16 (6.6)	172(70.8)	243(100)
베스트	총길이	67(27.6)	13 (5.3)	163(67.1)	243(100)
	가슴둘레	35(14.4)	43(17.7)	165(67.9)	243(100)
	허리둘레	36(14.8)	25(10.3)	182(74.9)	243(100)
하의	어깨넓이	28(11.5)	17 (7.0)	198(81.5)	243(100)
	총길이	60(24.7)	12 (4.9)	171(70.4)	243(100)
	허리둘레	48(19.8)	40(16.5)	155(63.8)	243(100)
	엉덩이둘레	46(18.9)	34(14.0)	163(67.1)	243(100)
바지통	바지통	48(19.8)	12 (4.9)	183(75.3)	243(100)
	바지길이	62(25.5)	20 (8.2)	161(66.3)	243(100)
	스커트길이	32(13.2)	18 (7.4)	193(79.4)	243(100)

판단된다.

베스트의 수선 비율은 26.4%로 응답자 중 16.5%가 줄이는 수선을 하고 있었으며 가슴둘레 항목은 블라우스와 반대로 가슴둘레가 작아 줄이는(14.4%) 수선 보다 늘이는(17.7%)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는 품목은 수선 비율이 29.6%로 수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의의 수선 경향도 줄이는 경우가 늘이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하의의 맞음새를 높이기 위해서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 편차에 대한 조항이 더 필요하여 사이즈체계의 증가가 요구된다.

이는 대부분의 착용자들이 치수의 적합성을 위해 줄이는 수선을 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사이즈 스펙과 패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근무부서에 따른 품목 부위별 수선실태는 Table 16과 같으며 스커트의 길이 항목에서만 의복부, 생활용품부, 잡화부, 순

Table 16. 근무부서에 따른 스커트 길이의 수선실태 비교

	의복부	식품부	잡화부	생활용품	기타	전체
수선안함	103(42.4)	39(16.0)	24(9.9)	16(6.6)	11(4.5)	193(79.4)
줄임	12 (4.9)	3 (1.2)	7(2.9)	6(2.5)	4(1.6)	32(13.2)
늘임	6 (2.5)	2 (0.8)	4(1.6)	5(2.1)	1(0.4)	18 (7.4)
전체	121(49.8)	44(18.1)	35(14.4)	27(11.1)	16(6.6)	243(100)

$\chi^2=16.795$ p<.032

Table 17. 치수적합성이 높은 유니폼의 구매 필요성

필요성	명	%
반드시 필요하다	60	25.0
필요하다	130	54.2
그저 그렇다	44	18.3
필요하지 않다	6	2.5
합계	240	100

으로 수선 빈도를 나타내면서 집단 간 유의한 차를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의차는 없었다. 그 밖에 치수적합성이 높은 유니폼의 구매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Table 17과 같으며 ‘반드시 필요하다’ 25%, ‘필요하다’ 54.2%로 전체 79.2%가 필요하다는 응답 결과로 맞춤형 유니폼의 개발 생산 공급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니폼 착용수가 많은 백화점 여직원을 대상으로 유니폼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입고 있는 유니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및 적합성을 분석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착용유니폼의 속성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약간 불만족한(2.65) 편이었으며 특히 기능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연령집단별 비교는 20대가 심미성과 상징성에 대한 불만족이 커서 40대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착용유니폼의 품목별 소재 평가는 블라우스의 소재 불만족(2.11)이 가장 컸으며 특히 생활용품부의 불만족이 커서 식품부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또한 하의에 있어서는 식품부 근무자의 불만족이 가장 컸으며 잡화부 근무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 착용유니폼의 동작적합성 평가는 쪼그리고 앉는 동작의 불편도(3.98)가 가장 컸으며 연령별 불편정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근무 부서별로는 잡화부(4.23), 생활용품부(4.22)가 식품부(3.50)보다 불편정도가 커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4. 착용유니폼의 치수선택은 보통 기성복보다 한 치수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었으며 착용유니폼과 기성복 착용치수 사이에는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5. 착용유니폼의 치수적합성 평가는 평균 2.98로 ‘보통이다’였으며 적합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블라우스길이와 베스트의

품이었다.

6. 착용유니폼의 수선실태는 품목별 길이항목에서 수선 빈도가 가장 높았고 블라우스 품목의 수선비율은 26%로 줄이는 수선이 많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백화점 여직원들은 현재의 유니폼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한 편이었으며, 속성 중 기능성 요소를 가장 높게 생각하고, 소재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 차후 유니폼 생산 시에는 전 품목에서 기능성과 외관을 고려하여 신축성과 흡수성, 내구성이 향상된 스트레치 소재의 사용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대에서 50대까지 체형의 변화가 다양한 폭넓은 연령층이 하나의 사이즈체계로 생산된 유니폼을 입을으로서 모든 품목에서 치수적합성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다양한 사이즈 및 체형이 커버 될 수 있는 맞춤형 조합식 사이즈 체계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백화점 여직원만을 대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의 착용실태를 파악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김시중·양리나 (2002) 패밀리 레스토랑 종사원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8(1), 23-46.

김연희 (2003) 유니폼 유형별 디자인 상징표현 방식 및 준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장미·박혜원 (2006) 기업의 유니폼 디자인 개발 연구 -F 유통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6(5), 75-88.

김혜령·서미아 (2002) 機械工業 종사자의 작업복 착용 실태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10(6), 718-734.

김혜원·박경애 (2003) 백화점 판매원의 고객지향성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11), 1270-1278.

남윤자·김경인·이윤정 (1997) 유니폼 실태조사와 디자인 개선을 위한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21(2), 455-470.

서지영 (2000) 은행 여직원의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경인 (1992) 서울 시내 은행 여직원의 유니폼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영 (1983) “복식의장학”. 교문사, 서울, p.25.

양리나 (2001) 한국호텔 종사원의 유니폼 만족도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5), 687-699.
오유진 · 최혜선 (2004) 119구조대원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1), 1384-1394.
장선옥 (2005)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복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나니 (2000)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 개발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 (2006. 07. 24) 유니폼 마케팅.
한현희 · 박명희 (2005) 유니폼 디자인의 조형성(I). *한국의류학회지*,

29(5), 649-661.
함은정 (2005) 전통음식점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진경 (2006) 환경미화원복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정순 · 서미아 (1998) 우리나라 관공서 여직원의 유니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4), 1-12.

(2007년 2월 14일 접수)

